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조정팀
2	×	○	담당관 : 김동석 (02-3677-2050)
			팀 장 : 장영자 (02-3677-2051)
			담 당 : 서혜란 (02-3677-2052)

김종천 과천시장, “코로나19 확산 막으려면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 시민들에게 호소

- 성탄절, 연말연시 연휴 모임 자제 호소
-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포장·배달 등 비대면 방식 활용 권해
-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 마음 아프고 송구

김종천 과천시장은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종천 시장은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평균 확진자가 774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가까워졌고, 과천지역에서도 4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직접 시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 발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으로, 과천시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한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김 시장은 “과천지역 확진자 중 가족 간 감염이 26%, 확진자 접촉 등 외부 요인이 74%”라며 “방역 당국의 노력과 조치만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며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김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

성탄절 및 연말연시 연휴기간에 모임, 여행,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및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준수
▲ 실내 공기 2시간마다 환기, 밀폐된 장소 오래 있지 않기를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검진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니 증상이 없어도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선별진료소는 과천시 보건소 앞 주차장에 위치하며, 검진 확대 시행으로 1월 3일까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검사는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에서는 코로나19 집단 전파를 막기 위해 양로원, 요양원을 비롯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등에 대해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천 시장은 “지금 불편하다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장기간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며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겪고 계시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 아프고 송구하다. 지역상권 이용시 포장·배달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 하는 등, 힘들더라도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 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과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3단계에 준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민간시설인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